



성(性)의 상이성과 상호 보완성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 대구대교구 4대리구 청년청소년 사목담당, 틴스타교사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특별합니다.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1,27)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일치를 이룹니다. 너무나 서로 잘 맞는 파트너였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창세 2,23) 첫 눈에 반한 것이죠. 둘은 순수한 눈으로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 1,25) 이처럼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 (창세 1,24)이 됩니다.

남녀가 서로 보완해 주면서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혼인성사입니다. 이 일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녀의 신체 구조를 볼 때,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가슴이 벌어지고 근육이 발달해서 가정을 튼튼히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몸은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남녀의 생식기 구조를 볼 때도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외부로 돌출이 되어있지만 여자의 생식기는 내부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채워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랑과 일치를 드러낸다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구조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향도 서로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에게는 단순함을 주셨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 없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남자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면 묵묵히 가정을 잘 지킬 수 없겠죠? 하느님께서 여자에게는 인내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인내롭게 가정에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녀의 성적인 호르몬도 다름에 영향을 줍니다.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이성적, 공격적, 논리적, 체계적, 객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감성적, 안정적, 직관적, 공감적, 주관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남자는 시각과 후각에 민감하지만 여자는 청각과 촉각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시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한 반면 여자는 언어적 능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성의 상이성을 통해서 서로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보려면 대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시비를 걸거나 외면하는 대화가 아니라 다가가는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가가는 대화란 서로의 기분과 감정을 함께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으로 일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에페 5,22, 25.) 쉽게 말하자면,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목숨바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 대해서 헌신함으로써 일치를 이루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